

대나무 숲

호코쿠지 절은 대나무 숲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현재 대나무 숲이 조성된 장소에는 과거 호코쿠지 절을 창건한 승려인 텐간 에코(1273~1335)를 위해 지어진 규코안이라는 암자가 자리해 있습니다. 말년의 에코는 이곳에서 기거하며 좌선 수행을 하거나 시를 읊고 짓기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. 에도 시대(1603~1867) 중엽에 접어들면서 암자의 옛터에 대나무를 심었는데, 지금은 그 수가 약 2,000 그루에 이릅니다. 이곳의 대나무는 성장이 가장 빠른 맹종죽이 대부분을 차지하며, 대나무 중에서는 매우 단단한 종류로 바구니 등의 일상용품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.

조용한 대나무 숲속에서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바람결에 흔들리는 잎 소리를 감상하며 자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,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말차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말차 카페 앞을 교차하는 2 개의 오솔길을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, 등롱이나 오랜 세월에 이끼가 낀 석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대나무 숲에 들어갈 때는 배관료를 지불합니다.